



신라하대의 왕궁 거주자 헌강왕헌덕왕대를 중심으로

The Residents of Royal Palaces in the Late Silla - Centering on King
Heongang and King Heondeok -

저자
(Authors) 정동락
Jung Dong lak

출처
(Source) [서강인문논총 45](#), 2016.4, 5-38(34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 E06676434>

APA Style 정동락 (2016). 신라하대의 왕궁 거주자. 서강인문논총, 45, 5-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하대의 왕궁 거주자

—헌강왕·헌덕왕대를 중심으로—

정 동 략*

1. 머리말
2. 헌강왕대의 北宮과 南宮
3. 헌덕왕대의 東宮과 月池宮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하대인 헌강왕대와 헌덕왕대의 왕궁 거주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 것이다. 신라하대의 正宮(大宮)은 왕과 왕비가 거주하는 궁궐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었다. 정궁을 중심으로 東宮, 北宮, 南宮 등의 방위명을 가진 궁궐이 존재했다. 西宮은 사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헌강왕 때의 정궁에는 헌강왕과 왕비가 머물렀다. 동궁에는 태자가 거주해야 하나, 당시는 태자가 책봉되지 않아 주인이 없었다. 북궁에는 여동생인 金曼이, 남궁에는 남동생인 金晷이 거주했다. 즉, 헌강왕대에는 정궁을 중심으로 남·북궁에 왕의 형제자매가 거주하였다.

헌덕왕 때의 정궁에는 헌덕왕과 왕비가 머물렀다. 동궁에는 태자와 태자비가 거주했으므로, 太子宮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822년(헌덕왕 14) 정월 헌덕왕은 동생인 秀宗을 副君으로 삼았다. 그리고 태자의 보필을 위해 동궁 구역 내에 머물도록 했던 듯하다. 수종이 머물면서 그곳은 月池宮으로 승격되었다. 헌덕왕 때에는 동궁 구역 안에 태자궁과 함께 월지궁이 병존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헌덕왕의 태자는 즉위하지 못하고, 부군이던 수종이 흥덕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면서 월지궁이 동궁의 별칭으로 인식되었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신라하대, 왕궁, 東宮, 月池宮, 北宮, 南宮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우리는 경주를 신라 천년왕국의 王都로 기억한다. 그곳에는 월성을 비롯해 첨성대와 왕릉 등 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다. 그 중에는 ‘안압지와 임해전’도 있으며, 최근에는 ‘동궁과 월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러한 유적에서 천 수백 년 전 신라 왕경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왕경의 구조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신라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뒤 다시 천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의 모습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라 왕경은 국왕과 왕족을 비롯해 귀족들이 살던 중심지로 많은 전각과 건물이 존재했다. 그 중심에는 왕이 머물던 正宮을 비롯해 왕의 血族들이 살던 궁궐이 있었다. 이 글은 신라의 궁궐 중에서 왕과 그 혈족들은 어디에 거주했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사실, 수없이 경주를 왕래했지만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한 바가 없었다. 최근, 신라의 동궁과 그 영역에 대해 논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¹⁾ 지금까지 東宮은 臨海殿, 雁鴨池는 月池이므로, 月池宮은 동궁이자 太子宮으로 파악해 왔다.²⁾ 하지만, 최근에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동궁

-
- 1) 김병곤, 「신라 동궁의 역할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제20집(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 2) 한병삼, 「안압지 명칭에 관하여」, 『고고미술』 제153집(한국미술사학회, 1982); 김장겸, 「신라시대 태자제도의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제13집(한국상고사학회, 1993); 고경희, 「안압지 명칭에 대한 고찰」, 『고고역사학지』 제16집(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박방룡, 「6세기 신라왕경의 제양상」,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26집(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 2005); 박방룡, 『신라도성』(학연문화사, 2013); 이문기,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업무」, 『한국고대사연구』 제39집(한국고대사학회, 2005); 전덕재, 「신라 왕궁의 배치양상과 그 변화」,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27집(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 2006); 이용현, 「안압지 목간과 동궁 주변」, 『역사와 현실』 제65집(한국역사연구회, 2007); 주보돈, 「신라 하대 김현창 난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제51집(한국고대사학회, 2008); 이승현, 「신라의 동궁제도」, 『한국고대사연구』 제55집(한국고대사학회, 2009).

은 태자궁이지만 월지궁과는 별개라거나,³⁾ ‘동궁’은 ‘동쪽에 있는 궁궐’로 태자궁일 수 없다고 한다.⁴⁾ 아울러, 南宮 등의 명문 자료가 출토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통일기에 월성의 동남쪽인 국립 경주박물관 부지에 남궁, 동쪽에 동궁, 북쪽에 북궁 및 관아 건물을 건립하고 그것을 포괄하여 왕궁으로 인식했으며”,⁵⁾ 헌강왕대에는 “王弟인 金晷이 남궁에 거주하고, 金曼은 북궁에 거처했다.”⁶⁾고 한다. 그렇다면, 헌강왕대에는 大宮에는 왕이, 남궁에는 왕의 남동생(金晷), 그 북쪽의 북궁에는 왕의 여동생인 金曼이 거주했다. 이들은 모두 경문왕의 자녀였고, 대궁을 중심으로 각각 남궁과 북궁에 머물렀던 것이다.

지금까지 신라의 북궁과 남궁, 동궁 문제는 그것의 위치, 건립시기 등이 주목되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거주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글은 신라하대 왕궁의 거주자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신라 전 시기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헌강왕대의 북궁과 남궁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헌덕왕대의 상황을 살펴보고,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2. 헌강왕대의 北宮과 南宮

흔히 신라하대를 쇠퇴의 시기로 정의하지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
- 3) 김병곤, 「안압지의 월지 개명에 대한 재고」, 『역사민속학』 제43집(한국역사민속학회, 2013a); 김병곤, 앞의 논문, 2015.
- 4) 최영성, 「월지궁 관련 자료 재검토-동궁은 태자궁이 아니다」, 『동양고전연구』 제55집(동양고전학회, 2014).
- 5) 전덕재, 앞의 논문, 2006, 191쪽.
- 6) 이문기, 「883년 김위홍의 해인사 비로자나불상 조성의 배경과 의미」, 『대구사학』 제119집(대구사학회, 2015), 43쪽.

에는 최전성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현강왕대 신라 왕경의 번영은 다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

- (A) ① 신라의 전성시기에 京中에는 17만 8천 9백 36호, 1천 3백 60방, 55리, 35개의 금입택[富潤大宅을 말한다.]이 있었다(『삼국유사』 권1, 기이2, 「진한」).
- ② 또, 四節遊宅이 있다. 봄에는 東野宅, 여름에는 谷良宅, 가을에는 仇知宅, 겨울에는 加伊宅이다. 제49대 현강대왕 때에는 城中에 草屋이 하나도 없었고, 집의 처마가 서로 닿고, 담장이 이어져 있었으며, 노래와 피리소리가 길에 가득차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삼국유사』 권1, 기이2, 「우사절유택」).
- ③ 제49대 현강대왕 때는 京師에서 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잇닿아 있었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웠다. 이때 대왕이 開雲浦에 出遊하였다. … 이는 地神과 山神이 나타나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춤을 추어 이를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國人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여 耽樂이 더욱 심하여졌으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삼국유사』 권1, 기이2, 「처용랑망해사」).
- ④ 현강왕 6년(880) 9월 9일 왕이 좌우의 신하들과 함께 月上樓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서울 백성들의 집들이 서로 이어져 있고 노래와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왕이 시중 敏恭을 돌아보고,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간에서는 기와로 지붕을 덮고 짚으로 이지 않으며, 솥으로 밥을 짓고 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하니 사실인가?” 라고 물었다. 민공이 대답하기를 “신도 역시 일찍이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래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변경도 평온하니 민간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聖德의 소치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경들이 도와 준 결과이지 朕이 무슨 덕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11, 현강왕 6년).

(A)는 대략 879년(헌강왕 5)⁷⁾과 880년 즈음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당시 왕경에는 17만 8천 9백 36호, 1천 3백 60방, 55리의 거대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였다. 거기에 35개의 金入宅과 계절마다 옮겨 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는 四節遊宅도 있었다. 가옥도 모두 기와로 지어졌고, 풍악과 노랫소리는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헌강왕은 侍中 敏恭과 함께 月上樓에 올라 서울의 번영을 왕의 聖德과 신하의 輔佐를 치하하는 등 자화자찬한다. 사치풍조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耽樂은 그치지 않았다.

헌강왕 때의 번영은 상당기간 동안 안정과 평화가 누적되어 온 결과물,⁸⁾ 혹은 민간의 생활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⁹⁾ 왕경의 풍경 중 중심이 되는 전각은 왕과 그 형제자매, 아들딸 등 왕의 혈족이 거주하는 궁궐이었을 것이다. 헌강왕과 그의 형제자매들은 어디에 거주하였을까.

경문왕은 전왕인 헌안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아들이 없자, 顧命을 받아 왕위를 계승했다. 신라하대에 처음 있는 女婿繼承이었다.¹⁰⁾ 경문왕의 왕비는 文懿王后(寧花夫人)과 동생인 次妃가 있었다. 왕과 왕후 사이에는 장남인 暹(헌강왕), 둘째인 晄(정강왕), 셋째인 暻(진성여왕)이 출생했다.¹¹⁾ 경문왕과 그의 자녀가 왕위를 계승하는 시기를 흔히 ‘경문왕계 왕실’이라 한다.

- (B) ① (a) 경문왕 6년(866) 봄 정월 왕자 暹을 王太子로 삼았다.(『삼국사기』 권11, 경문왕 6년) (b) 경문왕 7년(867) 봄 정월에 臨海殿을 중수하였다(『삼국사기』 권11, 경문왕 7년). (c) 헌강왕이 즉위하였다. 이

7) 『삼국사기』 권11, 헌강왕 5년 3월에 왕이 國東州郡을 순행할 때 4명의 山海精靈이 나타나 수레 앞에서 歌舞를 한 기사가 전한다.

8) 이문기, 앞의 논문, 2015, 24쪽.

9)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서울: 해안, 2010), 93쪽.

10)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과주: 경인문화사, 2003), 62쪽.

11) 김창겸, 위의 책, 2003, 60-75쪽.

름은 𪛗이고 경문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文懿왕후이고, 비는 懿明부인이다(『삼국사기』 권11, 헌강왕 즉위조).

② (a) 정강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𪛗이며 경문왕의 둘째아들이다(『삼국사기』 권11, 정강왕 즉위조). (b) 정강왕 2년 5월 왕이 병이 깊어 시중 俊興에게 말하기를 “나는 병이 위급하여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 嗣자가 없다. 그러나 나의 누이 𪛗은 천성이 명민하고 骨法이 장부와 같으니 卿 등은 善德과 眞德의 옛일을 모방하여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11, 정강왕 2년).

③ (a) 진성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𪛗이고 헌강왕의 女弟이다(『삼국사기』 권11, 진성왕 즉위조). (b) 진성왕 9년(895년) 겨울 10월에 헌강왕의 庶子 峯을 태자로 삼았다. … 이에 담당 관청에 명을 내려 예를 갖추어 책봉하여 받들게 하였다(『삼국사기』 권11, 진성왕 9년).

𪛗은 경문왕의 장남으로 866년(경문왕 6) 정월에 왕태자로 책봉되고, 875년 7월 경문왕을 이어 즉위하였다. 즉위한 뒤에는 正殿(대궁)으로 거처를 옮겼을 것이다. 헌강왕이 즉위한 뒤 거처한 대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라의 正殿은 7세기 중·후반 당의 궁궐 배치를 채용하면서 정착되었다. 신라하대는 朝元殿과 崇禮殿 등이 동서로 병립되어 있었다. 조원전에서는 정기적인 조회와 新正賀禮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의례를,¹²⁾ 승례전은 각종 연회나 사신 접견¹³⁾ 등에 활용하였다. 정전의 북쪽에는 內殿¹⁴⁾이 있었고, 국왕이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便殿(內皇殿),¹⁵⁾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寢殿,¹⁶⁾ 왕비와 후궁이 기거하는 中宮전(瑞蘭殿)¹⁷⁾ 및 후궁전, 궁리 및

12) 『삼국사기』 권5, 진덕왕 5년 정월;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7년 3월; 『삼국사기』 권11, 경문왕 8년 8월; 『삼국유사』 권5, 감통7, 「월명사도술가」.

13) 『삼국사기』 권8, 효소왕 7년 3월;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8년 2월;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6년 3월; 『삼국사기』 권8, 성덕왕 15. 『삼국유사』 권2, 기이2, 「처용랑망해사조」에서는 ‘同禮殿’으로 전하는데 동일한 전각으로 추정된다.

14) 『삼국유사』 권4, 의해5, 「현유가 해화엄」.

15) 『삼국유사』 권2, 기이2, 「원성대왕」.

궁녀들이 기거하는 건물들이 존재했다.¹⁸⁾ 헌강왕에게는 여러 명의 妃嬪이 있었다.¹⁹⁾ 정비인 懿明夫人 金씨는 서란전, 脩媛 權씨는 후궁전, 효공왕을 낳은 金씨는 궁 밖에 거주했을 것이다.

대궁의 동쪽에 위치한 東宮은 태자가 머무는 궁궐로 보인다. 동궁은 太子宮²⁰⁾ 또는 春宮²¹⁾ 등으로 불렸고, 태자는 동궁관속을 거느리며 왕위 계승을 준비를 했다.²²⁾ 태자는 차기에 왕권을 잇는 권력자로 여타 왕자와는 구별되는 존재였다. 따라서 동궁은 정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권력의 한 축을 이루었을 것이다.

신라에서 태자 책봉은 566년(진흥왕 27) 왕자 銅輪을 왕태자로 삼은 것에서 시작된다. 동륜은 일찍 사망하면서 즉위하지는 못하였다.²³⁾ 태종 무열왕은 655년(무열왕 2) 장자인 法敏을 태자로 삼았다.²⁴⁾ 하지만, 동궁제도가 정착한 것은 태자 책봉과 동궁 건립이 이뤄진 문무왕 때였던 듯하다. 문무왕은 665년(문무왕 5) 왕자 政明을 태자로 책봉하고,²⁵⁾ 679년(문무왕 19) 2월에 궁궐을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8월에 東宮을 創造하면서 내외 諸門의 額號를 始定하였다.²⁶⁾ 이로써 중대 이후 신라 왕궁이 자리를 잡았다. 그 뒤 752년(경덕왕 11) 8월에는 東宮衙官을 설치하였다.²⁷⁾ 『삼국사기』 직

16) 『삼국유사』 권2, 기이2, 「사십팔경문대왕」.

17) 『삼국사기』 권10, 소성왕 2년 정월.

18) 전덕재, 앞의 논문, 2006, 162~175쪽.

19) 김창겸, 앞의 책, 2003, 66~67쪽.

20)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15년(655) 2월; 의자왕 19년(659) 4월.

21)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 염축멸신」;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

22) 동궁은 단순히 태자가 거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궁관의 성립에서 태자는 왕 다음 가는 권위를 부여받았고, 동궁 관부를 운영하여 다음 대 통치행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한다(이승현, 앞의 논문, 2009, 229쪽).

23) 『삼국사기』 권4, 진흥왕 27년; 진흥왕 33년 3월.

24) 『삼국사기』 권5, 태종 무열왕 2년 3월.

25) 『삼국사기』 권6, 문무왕 5년 8월; 『삼국사기』 권8, 신문왕 즉위년.

26)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9년 2월 및 8월.

27) 『삼국사기』 권9, 경덕왕 11년; 『삼국사기』 권39, 직관 중.

관지 말미에 동궁관속으로 東宮衙를 비롯해 9개의 관부가 수록되어 있다. 경덕왕의 왕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²⁸⁾ 더불어 804년(애장왕 5)에는 臨海殿²⁹⁾을 중수하고, 東宮 萬壽房을 지었다.³⁰⁾ 만수방은 명칭으로 보아 동궁에 속한 태자의 장수와 관련된 職掌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특히, ‘동궁’을 관칭한 것으로 보아, 동궁은 별도의 구역을 갖춘 ‘別宮’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궁에는 태자와 태자비, 그의 가족들이 거처하는 전각이 있었고, 소속 관청 건물과 관속이 배속되었다.

晟은 866년(경문왕 6)에 왕태자로 책봉되어 동궁에 머물면서, 다음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한테, 이전 헌안왕 때에는 태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晟의 태자 책봉 전에는 동궁은 비어 있었을 것이다. 또晟이 헌강왕으로 즉위해 정궁으로 옮긴 뒤에도 동궁은 다시 비게 되었다. 헌강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태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 동궁은 895년(진성여왕 9) 10월에 헌강왕의 庶子인 曉를 태자로 삼으면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한편, 헌강왕 때에는 정궁과 동궁 이외에 방위명을 가진 북궁과 남궁이 존재했다. 북궁은 정궁의 북쪽에, 남궁은 남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두 궁궐은 『삼국사기』 직관지에 관속이 배치되지 않아, 동궁보다 격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왕궁 내 여타의 전각보다는 위상이 높았을 듯하다. 먼저, 북궁과 그곳의 거주자를 살펴보자.

(C) ① 大曆 2년 丁未(767, 혜공왕 3) 7월에 北宮庭中에 먼저 별 두 개가

28) 이승현, 앞의 논문, 2009, 221쪽.

29) 대체로 안압지는 월지로 임해진은 동궁으로 보는 견해가 인정되고 있다. 최근 왕이 주재하는 연회를 개최하는 임해진이 동궁 구역 안에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아울러, “월지는 대궁 속했으나, 관리는 동궁 관부에서 했을 것”이라는 도 의견도 있다(주보돈 경북대 교수의 교시).

30)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5년 7월.

떨어지고, 또 별 한 개가 떨어지더니, 별 세 개가 모두 땅 속으로 들어갔다(『삼국유사』 권2, 기이2, 「해공왕」).

② 해공왕 3년(767) 가을 7월에 별 세 개가 王庭에 떨어져 서로 부딪쳐 그 빛이 불과 같이 흐트러졌다(『삼국사기』 권8, 해공왕 3년).

③ 성덕왕 16년(717) 3월에 新宮을 창건하였다(『삼국사기』 권8, 성덕왕 16년).

(C)는 767년(해공왕 3)에 별이 떨어지는 이변을 기록한 내용이다. 『삼국유사』에서는 ‘北宮庭中’으로 기록한 것이, 『삼국사기』에서는 ‘王庭’으로 표현되어 있다.³¹⁾ 북궁은 곧 王庭으로 인식되었으며, 왕궁의 북쪽에서 일곽을 이룬 궁궐의 명칭이었다. 해공왕 이전에 조영되었겠지만 그 시기는 분명치 않다.³²⁾

(D) ① 北宮長公主(후일의 전성여왕)가 이 말을 듣고 이에 淸淨한 재물을 희사하여, 表具와 두루마리를 잘 꾸미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삼으셨다(『최문창후전집』 「결화엄경사회원문」).

② 거기서 藪라고 칭한 것은 곧 叢林(사원)을 이르는 것이다. 을사년(885, 헌강왕 11) 이전에는 단지 北宮海印藪라고 칭하다가, 庚戌년(890, 진성왕 4) 이후에 처음으로 惠成大王願堂이라고 칭한 것은 대개 角干 魏弘이 戊申년(888) 2월(실제로는 진성여왕 2년이다.)에 죽으니 여왕이 위홍을 생각하고 사사roy이 총애하여 혜성대왕으로 추봉하였기 때문이다(『매계집』 권4, 「서해인사전권후」).

③ 진성왕 11년(897) 여름 6월에 왕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근년 이래로 백성은 곤궁하고 도적들이 별떼같이 일어나니, 이는 내가 덕이 없는 탓이다. 어진 이에게 자리를 비켜 왕위를 양보하고자 하니 나의 뜻은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왕위를 태자 曁에

31) 전덕재, 2006, 앞의 논문, 182쪽.

32) 717년(성덕왕 16) 3월에 창건한 新宮을 북궁으로 보기도 한다(다나카 토시아키, 「신라 월성의 형성·변화와 단계」, 『신라학과 장안학의 관계 연구: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276~279쪽).

게 물려주었다. 겨울 12월 을사에 왕이 北宮에서 죽었다. 시호를 眞聖이라 하고 黃山에 장사지냈다(『삼국사기』 권11, 진성왕 11년).

북궁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인물은 경문왕의 공주이자, 헌강왕의 女弟인 金曼이다. 보통 ‘長公主’는 ‘왕의 누나 혹은 누이동생’의 칭호이다. 따라서 김만이 ‘北宮長公主’로 불린 시기는 오빠인 헌강왕이 즉위한 875년 이후였을 것이다. ①은 886년에 정강왕의 발의로 헌강왕의 추모법회를 개최하고, 화엄경을 寫經·講說하는 結社를 만들 당시의 사료이다. 이때 김만은 북궁장공주로 사경한 2본의 화엄경을 표구하고 꾸미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다. 그녀는 정강왕 때에도 북궁에 머물렀음이 확인된다.

다음 ②는 梅溪 曹偉가 1490년 해인사를 중창할 때 비로전의 도리 결구 속에 들어있는 해인사가 매득한 田庄券을 보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전장권은 모두 43매였는데, 조위는 이 문서 전체를 보았지만, 『梅溪集』에는 그 대략만 전한다. 조위는 “乾符 戊戌년(878, 헌강왕 4)에서 지금까지 610여년이 지났다.”고 밝혀 놓았다. 해인사가 ‘북궁해인수’라 불린 시기는 87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해인사는 890년(진성여왕 4) 뒤에는 ‘惠成大王 願堂’으로 불리기도 했다. ‘혜성대왕’은 角干 魏弘이 사망하자 진성여왕이 추존한 칭호였다. 김만은 887년 7월 정강왕을 이어 즉위하였는데, 대략 20세 정도의 나이였다.³³⁾ 895년 10월에 헌강왕의 서자인 嶢를 태자로 삼았고, 897년(진성여왕 11) 6월에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乙巳에 北宮에서 사망하였다.

김만이 북궁장공주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은 헌강왕이 즉위한 875년에서 878년 사이였다. 아마, 헌강왕이 즉위할 즈음에 북궁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시점을 878년으로 보기도 하지만,³⁴⁾ 3년 정도의 시차이

33) 전기웅, 앞의 책, 2010, 114쪽.

34) 이문기, 앞의 논문, 2015, 36~37쪽.

므로 현강왕 즉위와 동시에 이뤄졌을 개연성도 있다. 정강왕 때에도 왕의 여동생 자격으로 북궁에 거주하였다. 즉위하면서 북궁에서 정궁으로 옮겼고, 효공왕에게 양위하고 북궁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북궁은 왕궁 내의 離宮, 또는 35금입택 중 北宅으로 보기도 한다.³⁵⁾ 위치는 ‘성동동 전랑지’로 일시적인 왕궁으로 사용했다거나,³⁶⁾ 거리상 너무 멀다는 부정적인 견해³⁷⁾도 있다.

요컨대, 현강왕에서 효공왕 때까지 북궁은 김만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장공주의 자격으로 북궁에 거주하였다. 즉위한 뒤에는 정궁으로 이거해 북궁은 비었으나, 양위 뒤에 다시 북궁으로 돌아갔다. 현강왕 때의 북궁은 왕의 혈족, 구체적으로는 왕의 누이가 거주하는 궁궐이었다.

다음으로 남궁의 거주자는 누구였을까. 최치원이 찬한 「대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에 ‘남궁’이 등장하고, 발굴조사에서 ‘남궁’명 기와가 출토되었다.³⁸⁾

- (E) ① 乾符帝(당의 僖宗)가 (현강대왕의) 즉위를 인정한 해(878, 현강왕 4)에 (임금께서는) 나라 안의 眞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계책’(興利除害策)을 올리게 하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종이를 사용하여 말을 적게 하였다. 천자의 은혜를 입은 때문이었다. 나라에 이익(益國)을 주는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하여, 대사는 何尙之가 宋 文帝에게 바친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간했던 말’을 이끌어 대답하였다. 太傅王(현강왕)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介弟인

35)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서울: 혜안, 2011), 225쪽; 전덕재, 앞의 논문, 2006, 186~87쪽.

36) 다나카 토시아키, 앞의 논문, 2014, 278쪽 및 281쪽.

37) 박방룡, 앞의 논문, 2005, 163쪽; 박방룡, 앞의 책, 2013, 380쪽.

38) ‘남궁’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의 논고 참조. 이현태, 「신라 ‘남궁’의 성격-‘남궁지인’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81집(한국역사연구회, 2011); 이문기, 앞의 논문, 2015, 42~43쪽.

南宮栝(曄, 정강왕)에게 말씀하시기를, “三畏는 불교의 三歸依에 비길만하고, 五常은 불교의 五戒에 알맞게 어울린다. 능히 王道를 잘 실천하는 것이 佛心에 부합되는 것이다. 대사의 말이 지극하니, 나와 네가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대당혜화상 백월보광담비』).

② ‘南宮之印’명 평기와(수키와) 2점³⁹⁾

③ [935년 6월에 견훤이] 도착하자 두터운 예로써 대하였다. 甄萱이 10년 연장자라고 하여 높여서 상보(尙父)로 삼았다. 南宮을 居所로 주었으며, 지위는 百官의 위에 두었다. 楊州를 하사하여 食邑으로 삼도록 하였다. … 먼저 來降한 信康을 衙前으로 삼도록 했다(『삼국사기』 권50, 견훤전).

신라하대 남궁에 대한 문헌자료는 朗慧 無染(800~888)의 비문이 거의 유일하다. 그 외에 고려의 태조 王建이 귀부해온 후백제 甄萱을 남궁에 머물게 했지만, 신라가 아니라 고려의 왕궁이었다. 견훤은 상보(尙父)로 ‘百官之上’의 지위를 소유한 자격으로 남궁에 머물렀다. 고려의 남궁은 예우의 차원이긴 하겠지만 견훤과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 머무는 궁궐이었다.

(E) ①은 878년(헌강왕 4) 무염 선사가 ‘興利除害策’으로 올린 말을 보고 ‘介弟 南宮相’과 나는 대화의 대목이다. ‘개제’는 금석문에서 ‘大弟’ 혹은 ‘太弟’와 혼칭되기도 했다. 『무염비』와 『송복사비』에는 ‘太弟相國’의 세주로 ‘追奉 尊諡 惠成大王’이라는 구절이 전한다. 태제상국은 곧 경문왕의 동생인 김위흥으로, 혜성대왕으로 추존되었다. 헌강왕 때의 ‘개제’는 ‘金曄’으로, 그는 왕의 태제이자 ‘남궁상’이었다. ‘남궁상’은 ‘남궁의 제상’,

39)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미술관부지 및 연결통로부지-』(200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 동천동 696-2번지 유적-공동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본문·도판)』(2010). 한편, 수키와 2점에 대해서는 이현태, 앞의 논문, 2011, 161쪽, 〈표 1〉 ‘남궁’명 기와의 속성 참조.

혹은 ‘남궁에 거주하는 제상’이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는 唐의 용례를 참조하여 ‘남궁’은 ‘禮部’이며, ‘남궁상’은 곧 ‘예부의 장관’이라고 한다.⁴⁰⁾ 최근 ‘南宮之印’의 명문기와의 출토되어 후자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남궁명 기와는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및 경주 동천동 696-2번지 등 2곳에서 출토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 부지는 월성의 남쪽에, 동천동은 월성 북쪽에 위치해 거리상 떨어져 있다. 이에 남궁명 기와가 출토된 유구는 모두 제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예부 관할 하의 시설 내지 공간으로 보고 남궁은 예부라고 한다.⁴¹⁾

반면, 국립경주박물관이 월성 남쪽에 위치한 점에 착안하여, 남궁은 궁궐의 명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남궁을 경주박물관 일대에 위치한 궁궐,⁴²⁾ 대궁과는 별개의 독립된 궁궐로 금입택의 하나인 南宅,⁴³⁾ 궁성 내의 수공업 관부인 南下所宮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한다.⁴⁴⁾ 최근에는 일정한 구역과 전각을 가진 궁궐로, 왕족이 거주하는 궁궐 명칭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다.⁴⁵⁾ 또한, 남궁은 궁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예부로 파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거나,⁴⁶⁾ 남궁을 별궁으로 보면서 그 곳에 교육과 의례를 맡은 국가기구인 예부가 소속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⁴⁷⁾

남궁은 관부인 예부 또는 월성 남쪽의 별궁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되고,

4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성주사 낭혜화상탑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1992), 135쪽; 김창겸, 앞의 책, 2003, 138~139쪽.

41) 이현대, 앞의 논문, 2011, 164~169쪽.

42)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책, 2002, 270~271쪽.

43) 전덕재, 앞의 논문, 2006, 186쪽.

44) 박방룡, 「신라 왕경과 유통」,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27집(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2006), 67~68쪽; 박방룡, 앞의 책, 2013, 332쪽.

45) 이문기, 앞의 논문, 2015, 43쪽.

46) 이영호, 「신라의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제57집(한국고대사학회, 2010), 194~195쪽.

47) 최영성, 앞의 논문, 2014, 184쪽.

위치는 국립경주박물관 부지가 지목된다. 더 이상의 추가 자료가 없는 한 남궁의 성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북궁이 월성 북쪽의 별궁으로 국왕의 여동생인 장공주가 머문 궁궐이라는 점이 참고된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남궁 역시 남쪽의 별궁으로 국왕의 남동생인 남궁상이 머문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현강왕 당시 북궁과 남궁에는 왕의 혈족인 형제자매가 거주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요컨대, 현강왕 때의 왕궁 거주자로는 정궁에는 현강왕, 북궁에는 왕의 女弟인 장공주 金曼, 남궁에는 왕의 介弟인 金晁이 머물렀다. 당시에는 태자가 없었으므로 동궁 거주자는 없었다. 북궁과 남궁은 왕의 혈족이 머무는 별궁이었던 셈이다. 당시 신라의 궁궐은 월성의 정궁을 중심으로, 동궁, 북궁, 남궁이 호위하듯이 둘러싼 형태였다. 西宮은 사료가 전하지 않는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⁴⁸⁾

한편, 낭혜 무염의 비문에서 경문왕 때의 왕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F) 咸通 12년(871, 경문왕 11) 가을에 (경문왕께서는) 대사에게 홀연히 敎書를 보내어 사람을 시켜 부르니 ... 서울(穀下)에 도착하여 왕을 뵈었다. 先大王(경문왕)께서는 冕服차림으로 절을 하여 스승(王師)으로 삼았고, 왕비(君夫人)와 世子, 그리고 太弟相國(시호를 追封하여 惠成大王이라고 하였다)과 여러 公子와 公孫들이 빙 둘러싸고 한결 같이 우러렀는데 마치 옛날 伽藍의 벽 그림에 西方의 여러 왕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였다. ... 왕궁에서 나오자 卿相들이 다투어 마중하니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겨를이 없었고, 土庶가 뒤쫓으며 따르니 떠나고자 해도 그럴 수 없었다. 이때부터 國人들이 모두 자신에게 寶珠(佛性)가 있음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寶玉을 탐내지 않게 되었다(「대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

48) 박방룡은 계림 북편 건물지를 서궁으로 추정한다(박방룡, 앞의 책, 2013, 41쪽).

871년(경문왕 11) 경문왕이 무염을 초빙하여 왕궁에서 문답을 나눌 때의 상황으로, 장소는 정궁의 내전으로 보인다. 당시, 무염을 만난 사람은 경문왕을 비롯해, 왕비와 세자, 왕의 동생인 金龜弘(太弟相國), 그 외의 왕자와 공주, 왕손 등 왕의 혈족이었다. 왕과 왕비 다음에 세자가 언급되었고, 그 뒤가 김위홍이었다. 이는 당시 왕실의 공식적인 서열이었을 것이다. 경문왕 6년(866) 정월에 金暉을 王太子로 삼았으므로, 세자는 김정(헌강왕)이었다. 김위홍은 경문왕의 親弟인데, 伊滄으로 上宰相·兵部令을 겸하였다.⁴⁹⁾ 위홍이 세자 다음으로 언급된 것은 관직이 아니라, 왕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⁵⁰⁾ 그 외에 왕자와 공주로는 황(정강왕), 만(진성여왕)이 있었다. 무염은 왕궁에서 왕과 왕족을 먼저 만났고, 卿相과 士庶가 뒤를 이었다. 여기서 왕실 내의 서열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왕과 왕비, 그 뒤를 이어 태자(태자비), 왕제와 그의 처였을 것이다. 경문왕의 형제는 김위홍과 端儀長翁主가, 자녀로는 태자인 정과 황, 만 등이 있었다. 그 중 정은 동궁(태자궁)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 외에 황과 만은 경문왕과 함께 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문왕 때 김위홍과 단의장옹주는 어디에 거주했을까. 단의장옹주는 864년(경문왕 4)에 미망인으로 道憲의 단월이 되어 賢溪山 安樂寺에 주석토록 했고, 867년에는 토지와 노비를 희사했다.⁵¹⁾ 또, 진성여왕 때에는 실상산문의 秀澈화상에게 良州의 磔原山寺를 기진하여 머물게 했다.⁵²⁾ 미망인인 그녀와 김위홍은 북궁이나 남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 북궁은 헌강왕이 즉위하면서 북궁장공주인 김만이 머물렀다. 김만의 乳母로 김위홍의 처인 梟好夫人이 지목된다.⁵³⁾ 혹시 김위홍과 부호부인이 북궁에서

49) 이문기, 앞의 논문, 2015, 19쪽.

50) 이문기는 “왕실 서열상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가 정치적인 실세였기 때문”으로 본다(이문기, 앞의 논문, 2015, 17쪽).

51) 「지증대사적조탑비」.

52) 「수철화상능가보월영탑비」.

김만을 돌봤기 때문에, 김만이 북궁장공주가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단의장옹주는 남궁에 머물렀을 개연성이 있다. 헌강왕이 즉위하자 동생인 김황이 남궁상이 되었다. 그는 고모인 단의장옹주와 함께 남궁에 거주했던 것은 아닐까. 지나친 억측이지만, 경문왕 때에는 동궁에 태자인 김정, 북궁에 태제상궁 김위홍 부부, 남궁에는 단의장옹주가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지 싶다.

3. 헌덕왕대의 東宮과 月池宮

동궁은 태자가 머무는 태자궁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궁의 중심은 임해전이고, 그 앞의 연못은 안압지였다. 안압지는 곧 월지이며, 동궁은 월지궁이자 태자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⁴⁾ 하지만, 그에 대한 반론이 심심찮게 제기되었다. ‘동궁’은 ‘월성 동쪽에 있는 별궁’으로 본래 이름은 월지궁이지만 태자궁일 수는 없다거나, 동궁은 단순히 방위명 궁궐이 아닌 태자궁이지만 안압지는 월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⁵⁵⁾ 동궁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동궁과 월지궁은 어떤 관계이고, 거주자는 누구였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시대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헌덕왕대의 상황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3) 『삼국유사』 권2, 기이2, 「진성여왕 거타지」.

54) 앞의 주2) 참조.

55) 앞의 주3)·4) 참조.

- (G) ① 헌덕왕이 즉위하였다.(809년 7월) 이름은 彦昇이고 昭聖王의 同母弟이다. … 왕비는 貴勝부인인데, 각간 禮英의 딸이다. 이찬 金崇斌을 상대등으로 삼았다(『삼국사기』 권10, 헌덕왕 즉위조).
- ② 흥덕왕이 즉위하였다(826년 10월) 이름이 秀宗인데 뒤에 景徽로 고쳤다. 헌덕왕의 同母弟이다. 겨울 12월에 왕비 章和부인이 죽으니 추봉하여 定穆왕후라 하였다(『삼국사기』 권10, 흥덕왕 즉위조).
- ③ 흥덕왕이 왕위를 잇고 宣康太子(金忠恭)가 監撫함에 이르러 사악한 것을 제거하여 나라의 병을 고치고 착한 것을 즐기어 왕가를 기름지게 하였다(『지증대사적조탑비』).

헌덕왕인 金彦昇은 아우인 金秀宗과 함께 조카인 애장왕을 시해하고 809년 7월에 즉위하였다.⁵⁶⁾ 헌덕왕은 소성왕(俊昌)의 동모제로, 수종(秀升·昇), 忠恭(仲恭) 등 여러 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다.⁵⁷⁾ 헌덕왕은 즉위 직후 김승빈을 상대등으로 임명했고, 817년(헌덕왕 9) 정월에는 동모제인 충공을 시중으로 삼았다.⁵⁸⁾ 819년 2월에 김승빈이 죽자, 수종을 상대등에 임명했다.⁵⁹⁾ 수종은 그 뒤 822년(헌덕왕 14) 정월에 副君이 되었다가,⁶⁰⁾ 826년 흥덕왕으로 즉위했다. 김충공은 817년 시중, 822년 상대등이 되었다가, 흥덕왕 즉위 뒤에 宣康태자로 책봉되었다.⁶¹⁾ 이처럼 헌덕왕은 즉위 뒤 그의 형제들을 시중, 상대등, 부군 등 주요 관직에 임명하였

56)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10년 7월; 『삼국유사』 권1, 「왕력」. 『삼국사기』에는 왕의 숙부 彦昇과 그 아우 이찬 梯邕, 『삼국유사』에서는 왕의 숙부인 憲德과 興德 두 伊干에게 살해되었다고 나온다. 제웅은 수종(흥덕왕)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서울: 일조각, 1984), 155쪽, 주30).

57) 金崇斌이 헌덕왕의 형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김창겸, 앞의 책, 2003, 42쪽; 김창겸, 『신라 하대의 인계계 왕권과 김승빈』, 『신라사학보』 창간호(신라사학회, 2004), 207쪽; 최홍조,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변동과 김연승」, 『한국고대사연구』 제34집(한국고대사학회, 2004), 358쪽, 주79).

58)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9년 정월.

59)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1년 2월.

60)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4년 정월.

61)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9년; 『삼국사기』 권10, 민애왕 즉위조.

다. 특히, 수종과 충공 등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헌덕왕 때의 동궁 거주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

(H) ① 헌덕왕 9년(817) 봄 정월에 이찬 金忠恭을 侍中으로 삼았다.

② 헌덕왕 11년(819) 2월에 상대등 金崇斌이 죽었으므로, 이찬 金秀宗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③ 헌덕왕 13년(821) 여름 4월에 金忠恭이 죽었으므로, 이찬 永恭을 시중으로 삼았다.

④ (a) 헌덕왕 14년(822) 봄 정월에 母弟 秀宗을 副君으로 삼아 月池宮에 들어가게 했다. 秀宗은 혹은 秀升이라고도 한다. … (b) 3월에 熊川州 都督 憲昌이 그의 아버지 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 … (c) 각각 忠恭의 딸 貞嬌를 맞아 太子妃로 삼았다(이상 『삼국사기』 권10).

⑤ (a) 헌덕왕 14년(822)에 국왕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國王無嗣子), 母弟 秀宗을 儲貳로 삼아 月池宮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角干 忠恭이 上大等이 되어, 政事堂에 앉아 내외 관원을 전형, 선발하고 퇴근하여 병에 걸렸다. … (b) 헌덕왕을 위하여 緣眞이 한 말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왕은, “寡人이 人君이 되고 卿이 수상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직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儲君에게 이를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月池宮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儲君이 이 말을 듣고 들어와서 하례하기를, “일찍이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시 국가의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뒤에 熊川州都督 憲昌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였다(『삼국사기』 권45, 열전 5, 녹진전).

⑥ 흥덕왕이 즉위하였다.(826년 10월) … 겨울 12월에 왕비 章和부인이 죽자, 定穆왕후로 추봉하였다. 왕이 왕비 생각을 잊지 못해 슬픔에 싸여 즐거워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글을 올려 다시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건의하였다. … 하지만 왕이 끝내 따르지 않

있다. … 장화는 성이 金씨이고 昭聖王의 딸이다(『삼국사기』 권10, 흥덕왕 즉위조).⁶²⁾

⑦ (a) 淨神王의 아우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니(淨神王之弟與王爭位) 國人이 폐하고, 장군 4인을 五臺山에 보내 太子를 맞아오게 하였다(『삼국유사』 권3, 탐상4, 「대산오만진신」).

(b) 淨神太子의 아우 副君이 신라에 있으면서 왕위를 다투다 誅滅되자,(淨神太子弟副君 在新羅 爭位誅滅) 國人이 장군 4인을 파견하여 五臺山에 이르러 孝明太子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삼국유사』 권3, 탐상4, 「명주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

(H) ①~⑥은 822년 정월에 헌덕왕이 동모제인 수종을 부군 혹은 儲貳로 삼아 월지궁에 들어가게 한 전후의 상황이다. ‘부군·저이·儲君’ 등은 사전적으로 태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수종은 태자로 책봉되었고, 월지궁은 태자궁의 별칭이라고 한다. 즉, 부군·저이·저군을 태자로, 동궁을 월지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⁶³⁾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부군이 곧 태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⁶⁴⁾

한편, 부군에 대한 또 다른 용례가 『삼국유사』에서 찾아진다. (H) ⑦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므로, ‘정신왕의 아우’와 ‘정신태자의 아우 부군’은 동일인이다. 정신왕은 신문왕, 정신의 태자는 효소왕이었다. 이에 대해 ‘정신왕’을 ‘정신태자’의 오기로 보고, ‘정신태자’는 ‘정신의 태자(효소왕)’로 해석기도 한다.⁶⁵⁾ 이 경우 부군은 ‘왕의 아우’에게 내린 직책이

62) 『삼국유사』 왕력에는 “비는 昌花부인으로 시호는 定穆왕후인데 소성왕의 딸이다.”라고 한다.

63) 김창겸, 앞의 논문, 1993, 161쪽 및 166~168쪽; 김창겸, 앞의 책, 2003, 107~111쪽; 고경희, 앞의 논문, 2000, 522~523쪽; 주보돈, 앞의 논문, 2008, 241쪽; 이승현, 앞의 논문, 2009, 232~233쪽; 최영성, 앞의 논문, 2014, 184~185쪽.

64) 조범환, 「신라 하대 헌덕왕의 부군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진단학보』 제110집(진단학회, 2010);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부군 수종의 정체성과 태자」, 『동국사학』 제55집(동국사학회, 2013b).

65) 서정목은 이 구절을 “정신(신문왕)의 태자(효소왕)가 아우인 부군과 신라(서라벌)에

었다. 헌덕왕이 아우인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것과 비슷한 사례인 셈이다. 아울러, 왕이 부군과 왕위를 다투었다는 점에서 부군은 왕위계승권은 가졌지만, 태자와 동일한 직위인지는 불분명하다.⁶⁶⁾ 즉, 부군과 태자가 동일한지 불명확한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H) ④·⑤에서 수종에게 내린 부군의 지위는 태자라기보다 왕의 아우에게 내린 ‘특별한 자리’⁶⁷⁾로 보인다. 수종이 부군으로 임명된 시점에는 이미 헌덕왕의 아들인 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종은 822년 정월에 부군(저이)가 되어 월지궁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왕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수종이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 그런데, 822년 3월에 웅천주도독 金憲昌의 난을 진압한 뒤, “忠恭의 딸 貞嬌를 맞아 태자비로 삼았다.”는 기사가 뒤를 잇는다. 이 때 태자비를 맞이한 태자는 부군이 된 수종이 아니었다고 봐야

서 왕위를 다투다가 주멸했다.”로 해석하였다(서정목, 「삼국유사의 ‘정신왕’·‘정신태자’에 대한 재해석」, 『한국고대사탐구』 제19집(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361쪽). 조범환도 “정신(의) 태자(가) 아우 副君(과) 신라에서 위를 다투다가 주멸했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효소왕 9년 5월 慶永의 난과 연결시켜, 반 효소왕 세력이 효소왕을 폐위시키고 부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권력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다. 부군은 신문왕과 신목태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元子)이라고 한다(조범환, 「신라 중대 성덕왕의 왕위 계승 재고—『삼국유사』의 오대산사적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43집(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93~99쪽). 이럴 경우 부군은 왕위계승권을 가진 왕의 아우(元子)가 된다. 반면, 배재훈은 “부군이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 부군은 곧 태자를 의미하지만 다른 호칭인 부군을 쓰는 것으로 보아 효소왕대에 실제 후계로 지명된, 신문왕 즉위 후반기에 태어난 신목태후의 아들 중 한명으로, 효소왕보다는 어린 동생이었을 것”이라고 한다(배재훈, 「성덕왕의 왕위 계승 과정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6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5), 300쪽). 하지만, 부군은 태자와 동시에 언급되어 부군과 태자가 동일한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

66) 참고로 『화랑세기』에도 1세 魏花郎조와 8세 文弩조에 부군이 2차례 등장한다.

67) 주보돈은 “부군제는 발해의 副王처럼 차기 왕위계승권을 지니며 실권도 보유한 직책으로 왕위계승권자를 미리 확정지은 독특한 제도”라고 하였다(주보돈, 앞의 논문, 2008, 241쪽). 반면, 조범환은 부군은 태자를 보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든 자리로, 부군보다 태자의 위상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범환, 앞의 논문, 2010, 36쪽 및 42~44쪽).

한다.⁶⁸⁾ 수종에게는 이미 소성왕의 딸인 金씨 章和부인이 있었다. 장화부인은 826년 12월 수종이 즉위한 얼마 뒤에 사망하였고, 흥덕왕은 끝내 재혼하지 않았다. 요컨대, 수종이 부군이 된 시점에는 헌덕왕의 아들인 태자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 태자는 최소한 수종을 부군으로 삼은 2달 뒤에도 생존했으며, 정교와 혼인도 했다. 그렇다면 부군과 태자는 한동안 공존⁶⁹⁾한 별도의 인물과 직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헌덕왕에게는 태자와 心地 등의 아들이 있었다. 그 중 심지는 불교에 귀의해 왕위계승과는 관계를 끊었다.⁷⁰⁾ 태자는 822년(헌덕왕 14) 3월 이전에 태자가 되었고, 사촌 남매인 정교와 혼인했다. 태자 책봉 시기는 헌덕왕 즉위 전반기로 여겨진다. 826년 흥덕왕이 즉위할 때 이 태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녹진전에는 822년에 수종을 儲貳로 삼은 이유를 ‘國王 無嗣子’라고 표현했지만, 당시에는 태자가 있었다.⁷¹⁾ 이에 대해, 수종이 태자를 축출하고 부군에서 태자가 된 시기를 825년(헌덕왕 17)으로 추정하는가 하면,⁷²⁾ 정상적인 왕위계승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어떤 사건의 결과,⁷³⁾ 태자는 삼촌인 수종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했을 것,⁷⁴⁾ 부왕과 태자의 미약한 정치적 역량과 충공의 도움으로 헌덕왕 사후 태자를 무력화시키며 수종이 즉위에 성공한 것으로⁷⁵⁾고 보기도 한다. 이와 달리, 흥덕왕의 즉위에는 무력적인

68) 김창겸, 앞의 책, 2003, 109쪽, 주31.

69) 김병곤, 앞의 논문, 2013b, 190쪽.

70) 김창겸, 앞의 책, 2003, 106쪽; 김창겸, 「신라 승려 심지 연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34집(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3).

71) 김병곤은 녹진전의 ‘왕의 무사자’는 실체가 아니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김병곤, 앞의 논문, 2013b, 188~189쪽).

72) 민영규, 「신라흥덕왕릉비단석기」, 『역사학보』 제17·18합집(역사학회, 1962), 627쪽. 「흥덕왕릉비편」의 ‘〇巳之歲冊」을 근거로 흥덕왕 말년인 17년 을사에 수종을 태자로 책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73) 후보돈, 앞의 논문, 2008, 243쪽.

74) 조범환, 앞의 논문, 2010, 48쪽.

대립이 없었다고도 한다.⁷⁶⁾ 실제 헌덕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태자가 정치적으로 축출되고, 수중이 태자로 책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헌덕왕의 왕권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흥덕왕 즉위 당시에는 헌덕왕의 왕위를 이을 아들(嗣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이전에 어떤 사유인지 분명치 않지만, 태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싶다.⁷⁷⁾ 그렇다면 헌덕왕 말년 즈음(825년)에 수중이 부군에서 태자로 되었거나, 태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개연성은 있다. ‘國王 無嗣子’라는 표현은 흥덕왕 즉위 당시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헌덕왕의 태자와 부군(저이, 저군)인 수중은 대략 3년 정도는 동시에 생존한 듯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居所는 어디인지 의문이 생긴다. 일단, 헌덕왕의 태자는 동궁에 거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822년 정월에 부군이 된 수중은 월지궁으로 들어갔다. 동궁과 월지궁은 별도의 궁궐로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동궁과 월지궁은 별도의 건물로 동궁은 월지궁으로 개명된 바 없으며, 이칭으로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⁷⁸⁾ 동궁과 월지궁이 동일한 궁궐이 아니라, 이 둘은 별개라는 것이다.

경주 반월성 북동쪽에 위치한 소위 안압지(월지)의 발굴조사는 1970년대 중반과 근래에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는 수만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

75) 김병곤, 앞의 논문, 2013b, 211쪽.

76) 김창겸, 앞의 책, 2003, 109쪽, 주28.

77) 김병곤은 태자의 요절 기사가 부재한 것을 근거로 무死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김병곤, 앞의 논문, 2013b, 211쪽).

78) 김병곤은 “동궁과 월지궁을 동일처로 본다면 태자와 태자비의 거소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월지궁은 왕위계승권자의 거소인 동궁과 별도의 건물이며 용도도 차별적이었다. 그러므로 동궁은 월지궁으로 개명된 바 없으며 이칭으로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김병곤, 앞의 논문, 2013a, 19~20쪽; 김병곤, 앞의 논문, 2013b, 203쪽; 김병곤, 앞의 논문, 2015, 82쪽). 태자와 태자비, 수중의 ‘거소’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나,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었다.⁷⁹⁾ 그 중에는 안압지의 성격을 알려주는 다수의 명문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東宮衙’(철제자물쇠), ‘洗宅’(토기와 목간), ‘奉太子君·太子·太子’(목제 뚜껑과 목간), ‘龍王辛審’ 혹은 ‘辛審龍王’(토기), ‘隅宮·閣宮’(목간) 등의 문자도 있었다.⁸⁰⁾ 최근에는 국립경주박물관 남측의 ‘인왕동 왕경유적’에서도 ‘東宮洗宅’, ‘東宮衙’의 명문이 출토되었다.⁸¹⁾

한편, 『삼국사기』 직관지 말미에는 동궁 관부로 東宮衙를 비롯해 御龍省, 洗宅, 給帳典, 月池典, 僧房典, 庖典, 月池嶽典, 龍王典 등이 수록되어 있다.⁸²⁾ 안압지에서 출토된 동궁아, 세택, 용왕 등의 명문은 이곳이 동궁과 관련한 곳임을 증언한다. 직관지에 월지전과 월지악전이 존재하므로, 안압지는 곧 월지였을 개연성이 있다. ‘태자군’ 또는 ‘태자’ 명문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인공이 태자였음을 짐작케 한다. ‘동궁과 월지’로 명명된 곳은 태자가 거주하는 ‘동궁 구역’으로 보는 것이 순리일 듯하다.⁸³⁾ 그런데, 월지와 거리상으로 떨어진 ‘인왕동 왕경유적’에서도 동궁 관련 명문이 출토되었다. 이곳은 ‘남궁’명 기와가 출토된 국립경주박물관의 남쪽에 해당한다. 여기에 동궁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으므로 이곳을 동궁 구역에 포함시킨다면⁸⁴⁾ 그 규모가 지나치게 넓다. 이 때문에 동궁 구역은 안압지 부근이 아니라, 인왕동 왕경유적 인근의 월성 동남쪽 일대로 주장기도 한

79) 문화재관리국,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197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보고서』(2012).

80) 고경희, 앞의 논문, 2003; 이문기, 앞의 논문, 2005; 이용현, 앞의 논문, 2007; 김병곤, 앞의 논문, 2015.

81)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Ⅱ-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조사』(2014).

82) 『삼국사기』 권39, 직관 중.

83) 김병곤은 월성 북측 언뫼들을 월지로 총칭하고, 월지궁은 월성 북단 언뫼인 월지 근처에 축조되어 안압지와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한다(김병곤, 앞의 논문, 2013b, 201~202쪽).

84) 최순조,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동궁아명 호 및 신변(?) 동궁세택명 청동접시-』, 『목간과 문자』 제10집(한국목간학회, 201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4.

다.⁸⁵⁾ 하지만, 그곳에는 ‘독립된 궁궐로 파악할 만한 건물지’가 존재하지 않아, 동궁과 직접 관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직관지에는 9개 이상의 동궁 관부가 있는데, 그 예하에는 여러 관련 부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관부가 모두 동궁 구역 안에 위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일부는 요즘의 중앙부서 外廳과 같이 동궁 구역 밖에 존재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인왕동 왕경유적의 ‘동궁세택’, ‘동궁아’ 등의 명문은 동궁 구역 안이라기보다, 그에 속한 별도의 건물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인 셈이다.⁸⁶⁾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삼국사기』 본기에는 822년 정월에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 월지궁에 들어가게 했다. 열전의 「綠眞傳」에는 수종을 儲貳로 삼아 월지궁에 들어가게 했는데, 당시의 사정을 좀 더 상세하게 전한다. 忠恭이 상대등이 되어서 政事堂에서 집무를 보다가 병을 얻었는데, 녹진의 간언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았다. 충공이 헌덕왕에게 그 내용을 말하자 왕이 儲君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으니, 월지궁으로 가도록 했다. 월지궁에 있던 저군은 이 말을 듣고 왕궁으로 들어와 왕에게 하례하였다. 여기서 副君과 儲貳는 동일한 직책으로, 그 인물은 수종이었다. 다만, 「녹진전」의 儲貳와 儲君은 모두 수종으로 보거나,⁸⁷⁾ 저이는 수종으로 저군은 태자로 별도의 인물로 파악기도 한다.⁸⁸⁾ 헌덕왕이 충공에게 월지궁에 가도록 했다는 기사로 보아, 부군·저이·저군이 머물던 곳은 월지궁이었다. 아울러, 부군·저이·저군도 같은 인물인 수종으로 봐야 할 듯하다.

85) 김병곤, 앞의 논문, 2015, 102쪽.

86) 최순조는 인왕동 왕경유적의 성격을 “동궁의 관아가 있었던 곳, 신라 동궁의 영역을 확대 해석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최순조, 앞의 논문, 2013, 203쪽).

87) 김창겸은 태자와 부군 수종을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녹진전」의 저이와 저군은 수종이라 한다(김창겸, 앞의 책, 2003, 108-109쪽).

88) 조범환, 앞의 논문, 2010, 43쪽.

그렇다면 822년 정월 당시에는 태자가 머문 태자궁과 수종이 거처한 월지궁은 별도로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다만, 월지궁은 월지에 접한 궁으로 동궁 구역 안 혹은 그와 인접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⁹⁾ 즉, 월지궁은 동궁 구역 안에 있었지만, 태자궁은 아니었다. 헌덕왕 때에는 동궁 구역 안에 태자궁과 월지궁이 병존하는 양상으로 판단된다. 헌덕왕은 태자의 지위 강화로 차기 군왕으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순조로운 왕위계승을 위해,⁹⁰⁾ 수종을 부군(저이·저군)으로 삼아 태자를 보필하도록 했던 듯하다. 부군 수종이 머물면서 이 전각은 ‘宮’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월지궁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직관지의 동궁 관부 중 월지전의 관원만 ‘關’로 나오는데, 이는 여타 관부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월지전은 월지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해되지만,⁹¹⁾ 월지궁의 관리를 맡은 부서로 보기도 한다.⁹²⁾ 단언할 수는 없지만, 후자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월지전은 월지궁전의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 『삼국사기』 찬자도 월지궁과 월지전의 관계, 관원 등에 대해 혼란스러웠을 수 있다. 이는 수종이 직접 태자로 불리지 않았고, 부군이나 저이, 저군 등으로만 언급되었다. 그가 동궁 구역 안에 있는 월지궁에 머물렀지만, 당시 월지궁은 태자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헌덕왕 당시 동궁 구역 안에는 태자가 머무는 태자궁, 부군 수종이 머

89) 월지궁이 동궁과 인접한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둘의 명칭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구역 내에 위치했을 개연성이 높다.

90) 조범환은 “태자의 순조로운 왕위계승을 위해 태자를 보호하고 정치적 후견인 내지 조력자로 삼고자 수종을 부군으로 삼았다.”고 한다(조범환, 앞의 논문, 2010, 41쪽).

91) 이문기, 앞의 논문, 2005, 190쪽; 이용현, 앞의 논문, 2007, 281쪽; 이승현, 앞의 논문, 2009, 227쪽.

92) 井上秀雄은 동궁이는 태자궁의 관리, 월지전은 월지궁의 관리 임무를 맡은 부서로 파악한다(정상수용 역, 『삼국사기』; 고경희, 앞의 논문, 2000, 513쪽, 주7 재인용; 김병곤, 앞의 논문, 2015, 94쪽). 이인철은 월지궁이 왕태자가 상거하는 궁이므로 월지전은 왕태자가 거처하는 궁을 관리하는 관부라고 한다(이인철,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1993), 74쪽).

무는 월지궁이 병존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태자가 아니라 수종이 흥덕 왕으로 즉위하면서 월지궁을 동궁(태자궁)의 별칭이라는 인식이 생긴 듯 하다. 요컨대, 수종이 동궁 구역 안에 머물면서 월지궁이란 명칭을 가진 궁궐이 생겨났고, 흥덕왕으로 즉위한 뒤부터는 월지궁은 동궁의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⁹³⁾

한편, 최치원이 찬한 「지증대사 적조탑비」(893)에서 월지궁이 한 차례 더 등장한다.

(1) 太傅大王(현강왕)은 중국의 풍속으로써 弊風을 일소하고 넓은 지혜로써 마른 세상을 적시게 하였다. … 대사가 禪院寺에서 휴식하게 되자, 편안히 이틀 동안을 묵계(信宿) 하고는 인도하여 月池宮에서 心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때는 섬세한 담쟁이덩굴(葛藟)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바람이 불지 않고 溫室樹에 바야흐로 밤이 될 무렵이었다. 마침 달(金波) 그림자가 맑은 못 가운데 똑바로 비친 것을 보고는, 대사가 고개를 숙여 유심히 살피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이것(月)이 곧 이것(心)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현강왕께서 상쾌한 듯 혼연히 契合하고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연꽃을 들어 뜻을 나타냈던 風流가 진실로 이에 합치되는 구려!”라고 하고, 드디어 除拜하여 忘言師로 삼았다. … 곧 宣敎省 副使 馮愬行에게 명하여 대사가 산으로 돌아가는 데 衛送토록 하였다 (「지증대사적조탑비」).

智證 道憲(824~882)은 현강왕의 초빙으로 왕실로 들어와 禪院寺에 머물다가 왕의 인도로 월지궁에서 마음(心)에 대한 선문답을 하고, 忘言師에 임명되었다. 여기서 현강왕 당시 월지궁과 그 주변의 풍경이 표현되어 있

93) 보통 현덕왕 이전부터 동궁은 월지궁으로 불렸다고 이해한다(이승현, 앞의 논문, 2009, 218쪽). 월지는 존재했지만 월지궁이란 명칭은 그 이전의 사료나 명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⁹⁴⁾ 선원사는 월지궁 구역 안에 있는 內佛堂이거나 그 가까이에 있는 왕실 사찰일 듯하다. 또, 월지궁 주변으로는 담쟁이덩굴이 덮인 담장(울타리)이 있어, 별도의 구역을 이루었다. 월지 주변의 온실에는 여러 종류의 온실수를 심었으며, 밤에는 달빛이 비쳐 운치를 더했다.⁹⁵⁾ 헌강왕이 도헌선사와 선문답을 나눈 곳이 월지궁이었다. 도헌비에서 언급된 월지궁은 곧 동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흥덕왕 이후 헌강왕 때에 월지궁이 동궁의 별칭으로 불렸음이 확인된다.

헌강왕은 왜 대궁에 있던 접견 장소가 아니라 월지궁(동궁)에서 도헌과 선문답을 나누었을까. 먼저, 헌강왕은 즉위 전에 태자로 동궁에 머문 경험이 있었으므로, 월지의 풍경을 잘 알았을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도헌선사와 선문답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당시 월지궁은 도헌과 같은 승려를 초빙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직관지에는 동궁 관부로 僧房典이 존재한다. 이곳은 승려들이 거처하면서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⁹⁶⁾ 헌강왕이 도헌을 초빙하여 선원사에 머물다가, 월지궁에서 선문답을 나누고, 다시 왕궁을 떠날 때까지의 업무를 기획하고 담당한 관부는 동궁 소속의 관부였을 것이다. 월지궁이 곧 동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삼국유사』 「원종흥법 염축멸신」조에 인용된 元和 년간(806~820) 南潤寺의 一念이 찬한 「靑香墳禮佛結社文」에는 異次頓을 ‘春宮 內養者’라고 하였다. 춘궁은 동궁의 별칭이므로, ‘춘궁 내양’은 곧 ‘동궁 내양’이었다. 범흥

94) 최영성, 앞의 논문, 2014, 186~189쪽.

95) 최영성은 동궁에 있는 온실수를 중국 前漢 때 세운 溫室殿으로 파악하고, 국가의 기무를 다루는 곳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를 동궁에 속했던 中事省과 비슷한 성격이며, 이를 근거로 동궁은 월지궁이지만 태자궁이 아니며, 別宮으로 왕이 정사를 담당했던 국정 중심부(樞府)가 있었다고 한다(최영성, 앞의 논문, 2014, 189~190쪽). 월지 주변의 온실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96)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 중에 ‘僧門金□□□’도 확인된다(이용현, 앞의 논문, 2007, 282쪽).

왕 당시에는 동궁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춘궁 내양이라는 관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마, 이차돈이 국왕의 측근으로 불교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에서, 신라하대의 승려였던 일념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⁹⁷⁾ 경문왕 때인 872년(경문왕 12)에 작성된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의 書者로 ‘崇文臺郎 兼 春宮 中事省 臣姚克一 奉教書’에서, 춘궁 중사성이 등장한다. 춘궁은 동궁이며 중사성은 洗宅의 고친 이름이므로, ‘춘궁 중사성’은 ‘동궁 세택’의 다른 명칭이다. 다음, 「징효대사보인탑비」(924)에는 888년(진성왕 2) 진성여왕이 ‘東宮 內養 安處玄’을 파견하여 澄曉 折中에게 綸言을 전달했다.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905)에는 수철이 입적하자 진성여왕의 위문 교서를 ‘春宮 奉食郎 王輅’가 전달했다.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924)에서는 918년(경명왕 2) ‘中事省 內養 金文式’ 등을 보내 眞鏡 審希를 왕실로 초빙했다. 여기서 ‘중사성 내양’은 ‘동궁 내양’과 같은 명칭일 것이다.

신라하대인 헌덕왕부터 경문왕, 경명왕대에 작성된 금석문에서 ‘춘궁 내양’, ‘춘궁 중사성’, ‘동궁 내양’, ‘중사성 내양’ 등의 관직자가 다수 발견된다. 모두 동궁에 소속된 관리들로, 승려(선승)를 초빙하거나 위문하는 교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동궁의 주요 職掌 중의 하나가 승려와 불교사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헌강왕이 월지궁에서 도헌선사를 만난 것도 월지궁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월지궁이 동궁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궁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97) 김병곤은 「결사문」에 나오는 ‘春宮과 月庭’을 각각 ‘동궁과 월지궁’으로 대비시켜 이해하고, 둘은 병립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김병곤, 앞의 논문, 2013a, 19쪽; 김병곤, 앞의 논문, 2013b, 206쪽). 하지만, ‘춘궁과 월정’은 ‘동궁과 월정의 대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4. 맺음말

신라하대의 正宮(大宮)은 왕과 왕비가 거주하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었다. 정궁을 중심으로 東宮, 北宮, 南宮의 방위명을 가진 궁궐이 있었다. 西宮은 사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현강왕대와 현덕왕대의 왕궁 거주자를 살펴본 것이다.

현강왕 때에는 정궁에는 현강왕과 왕비가 머물렀다. 동궁에는 태자가 거주해야 하나, 당시는 태자가 책봉되지 않아 주인이 없었다. 다만, 동궁 관부는 해당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그 외에 북궁에는 여동생인 북궁장공주인 金曇이 거주하였고, 뒤에 진성여왕으로 즉위했다. 남궁에는 남동생인 南宮相 金晁이 거주했고, 뒤에 정강왕으로 즉위했다. 현강왕대에는 정궁을 중심으로 남·북궁에 왕의 형제자매가 거주하였다. 그 뒤에는 정강왕과 진성여왕이 왕위를 잇는다. 남궁, 북궁은 新王이 즉위하면 해당 왕의 혈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궁은 태자가 머무는 太子宮이며, 북궁·남궁에 비해 위상이 높았다.

한편, 현덕왕대에는 정궁에는 현덕왕과 왕비가 머물렀다. 동궁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태자와 태자비가 거주했다. 이들이 머무는 곳은 태자궁이라 할 수 있겠다. 한데, 822년(현덕왕 14) 정월 현덕왕은 同母弟인 秀宗을 副君으로 삼았다. 그리고 태자의 보필을 위해 동궁 구역 내의 전각에 머물도록 했던 듯하다. 수종이 머물면서 그곳은 月池宮으로 승격되었던 듯하다. 즉, 현덕왕대에는 동궁 구역 안에 태자궁과 함께 월지궁이 병존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현덕왕의 태자는 사망 등의 요인으로 즉위하지 못했다. 이에 부군이었던 수종이 흥덕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때부터 월지궁은 동궁의 별칭으로도 불렸던 듯하다. 다시 말해 월지궁은 현덕왕 때에 부군 수종이 거쳐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흥덕왕의 즉위 후에는 동궁

의 별칭으로 인식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글은 신라하대의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이므로, 확대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대궁을 중심으로 동궁, 북궁, 남궁 등 방위명을 가진 궁궐이 존재했고, 왕의 혈족이 머무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보고서』, 2012.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미술관부지 및 연결통로부지-』, 2002.
-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 해안, 2011.
-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문화재관리국,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1978.
- 박방룡, 『신라도성』, 학연문화사, 2013.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Ⅱ-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조사』, 2014.
- 이기동,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 이인철,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일지사, 1993.
-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해안, 2010.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1992.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 동천동 696-2번지 유적-공동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본문·도판)』, 2010.

논문

- 고경희, 「안압지 명칭에 대한 고찰」, 『고고역사학지』 제16집, 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 김병근, 「안압지의 월지 개명에 대한 재고」, 『역사민속학』 제43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a.
- _____, 「신라 헌덕왕대의 부군 수종의 정체성과 태자」, 『동국사학』 제55집, 동국대학교사학회, 2013b.
- _____, 「신라 동궁의 역할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제20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 김창겸, 「신라시대 태자제도의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제13집, 한국상고사학회, 1993.
- _____, 「신라 하대의 인계계 왕권과 김승빈」, 『신라사학보』 창간호, 신라사학회, 2004.
- _____, 「신라 승려 심지 연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34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3.
- 다나카 토시아키, 「신라 월성의 형성·변화와 당제」, 『신라학과 장안학의 관계 연구 :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 민영규, 「신라헌덕왕릉비단석기」, 『역사학보』 제17·18합집, 역사학회, 1962.
- 박방룡, 「6세기 신라왕경의 제양상」,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제26집, 동국대 신라문

- 화연구소, 2005.
- _____, 「신라 왕경과 유통」,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제27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 배재훈, 「성덕왕의 왕위 계승 과정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6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5.
- 서정목, 「삼국유사의 ‘정신왕’·‘정신태자’에 대한 재해석」, 『한국고대사탐구』 제19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
- 이문기,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업무」, 『한국고대사연구』 제39집, 한국고대사학회, 2005.
- _____, 「883년 김위홍의 해인사 비로자나불상 조성의 배경과 의미」, 『대구사학』 제119집, 대구사학회, 2015.
- 이승현, 「신라의 동궁제도」 『한국고대사연구』 제55집, 한국고대사학회, 2009.
- 이영호, 「신라의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제57집, 한국고대사학회, 2010.
- 이용현, 「안압지 목간과 동궁 주변」, 『역사와 현실』 제65집, 한국역사연구회, 2007.
- 이현태, 「신라 ‘남궁’의 성격-‘남궁지안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81집, 한국역사연구회, 2011.
- 전덕재, 「신라 왕궁의 배치양상과 그 변화」,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제27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 조범환, 「신라 하대 헌덕왕의 부군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진단학보』 제110집, 진단학회, 2010.
- _____, 「신라 중대 성덕왕의 왕위 계승 재고-『삼국유사』의 오대산사적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43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주보돈, 「신라 하대 김현창 난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제51집, 한국고대사학회, 2008.
- 최순조,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동궁아명 호 및 신명(?) 동궁세택명 청동접시-」, 『목간과 문자』 제10집, 한국목간학회, 2013.
- 최영성, 「월지궁 관련 자료 재검토-동궁은 태자궁이 아니다-」,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2014.
- 최홍조,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변동과 김연승」, 『한국고대사연구』 제34집, 한국고대사학회, 2004.
- 한병삼, 「안압지 명칭에 관하여」, 『고고미술』 제153집, 한국미술사학회, 1982.

〈Abstract〉

The Residents of Royal Palaces in the Late Silla -Centering on King Heongang and King Heondeok-

Jung Dong lak

This writing examines who the residents of the royal palaces were during the rules of King Heongang and King Heondeok in the late Silla. The Jeonggung(正宮) or Daegung(大宮) palaces in the late Silla was the most important architecture among royal palaces where kings and queens resided. Surrounding Jeonggung existed Donggung, Bukgung(北宮) and Namgung(南宮), bearing the names of the point of the compass, East, North and South. The existence of Seogung(西宮) is not confirmed in historical materials. At Jeonggung during the rule of King Heongang, King Heongang and his Queen resided. Donggung was for the Crown Prince(太子) but since there was not any installation of the Crown Prince then, so the palace was left empty. In Bukgung, King's sister Kim Man(金曼) lived and in Namgung, brother Kim Hwang(金晷) lived. In other words, during the rule of King Heongang, the king's brother and sister lived in Namgung, Bukgung surrounding Jeonggung. During the rule of King Heondeok, King Heondeok and his Queen lived in Jeonggung. Since the Crown Prince(太子) and the Crown Prince's wife(太子妃) lived in Donggung, it could be Taejagung(太子宮). But in January 822, or the

14th year under the rule of King Heondeok, the King appointed his younger brother Sujong(秀宗) as Bugun(副君) or his successor and made him stay in the Donggung area for the Crown Prince's counsel. Sujong's residence at Donggung elevated its status to Woljigung(月池宮). So, during the rule of King Heondeok, there were both Taejagung and Woljigung inside the Donggung area. Later, the King's Crown Prince did not ascend to the throne and instead Sujong, the Bugun(副君), became King Heungdeok. From this, it is believed that Woljigung became another name for Donggung.

Kew words : late Silla dynasty, royal palace, Donggung(東宮), Woljigung(月池宮), Bukgung(北宮), Namgung(南宮)

접수일자: 2016년 03월 09일

심사완료: 2016년 04월 03일

게재확정: 2016년 04월 07일